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529

JCCT 2021-8-63

##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n Safety Awareness of Korean Language Level of International Students

이재영\*, 공하성\*\*

Jai Young Lee\*, Ha-Sung Kong\*\*

**요약**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현능력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여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에 맞는 안전의식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 시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한 한국어 이해 교육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유학생, 생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한국어 수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and the effect of Korean language level on safety aware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such as life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and disaster safety awareness depending on the area of residence. The results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n language expression and comprehension ability on safety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Korean expression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fety awareness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Comprehension ability had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fety awareness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it was found that Korean express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ire safety awareness and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language express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safety awareness and ha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safe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le staying and living in Korea, and when teaching Korean, Korean language comprehension education on safety-related topics as well as daily Korean must be strengthened.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 Life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Disaster safety awareness, Korean language level

\*정희원,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교수 (제1저자) Received: July 5, 2021 / Revised: July 25, 2021

\*\*정희원,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August 1, 2021

접수일: 2021년 7월 5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119wsu@naver.com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일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Woosuk Univ, Korea

## I.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역사적으로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학, 직업, 결혼,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 통계연보 2019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여 단일민족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1]

또한 한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교 입학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정부 차원에서 국제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유학생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학자원 감소는 대학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10년 전부터 각 대학은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4월 기준 16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 중에서 학위과정은 약 10만여 명이며, 연수 과정은 약 5만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제화 현상으로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문화적,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범죄와 안전사고 등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발생한 리조트 건물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형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재난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등에 대한 인식조사 및 관련 법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유학생에 대한 제도화된 안전교육 관련 지침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가 제정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에서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도이며[3],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 안전관리 안내서나 규칙 등을 만들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12월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으며[4], 재난안전의식사고에 취약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재난안전의식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5] 하지만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한국 교육의 발전 및 계획,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경우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 1.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재모(2008)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연구”는 낮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증,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학생의 경제적 수준, 한국어 능력, 건강 상태, 국내 거주기간, 종교 등이 있다고 조사하였다.[6]

김윤희·류은숙(2015)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의식 취약성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 및 훈련 참여 요구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국내 외국인에 대해 적극적인 재난안전의식 정보전달, 안전교육 기회 제공, 맞춤형 안전교육 제공, 안전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

유승범(2019)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 후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한국 사회의 안전수준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안전교육 요구도도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교육 학습 방법 선호도는 동영상, 앱, 실습을 선호하였으며, 사용언어는 영어를 가장 선호하였다. 안전교육 내용은 기후성 재난 안전의식, 성폭력 안전, 사기범죄 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

박미정(2020)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심으로

외국인의 성별, 연령, 학력, 국적, 체류자격, 거주지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생활 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등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재외동포 자격이 단순기능취업 자격과 비교해 안전의식이 낮다는 것, 중소도시 거주자가 농산어촌 거주자와 비교해 생활안전의식 분야에 있어서 안전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 전문가를 통한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된 교육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이재모(2007)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낮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써 안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으며, 김윤희·류은숙(2015) 및 박미정(2020)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류승범(2019)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수준 인식 및 안전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6대 분야 23개 영역 등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안전의식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였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은 한국어 수준일 것이다. 이는 개인적 특성과 국가, 체류기간, 지역, 생활수준에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전, 충청지역 거주 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학생 한국어의 표현과 이해 능력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생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미치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설계

### 2.1. 연구가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따라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은 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재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연구의 도구

이 연구에서 소방청이 2007년에 개발한 국민안전의식 지수로써 지수를 측정하는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소방방재 전문가가, 이차적으로 소방·재난·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종 측정항목을 확정된 연구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6개 문항, 한국어 수준에 관한 4개 문항, 안전의식에 관한 3개 영역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알파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연구 도구의 구성현황은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도구의 구성현황

Table 1. The Composition of Research Tools

Division	Question Content	Question	Ref.
General	- Gender - Age - Status of residence - Nationality - Area of residence - Duration of staying	6	NEMA, 2007년, National Safety Awareness Index
	- Expression ability - Comprehension ability	2 Likert 5 point Measure	
Safety awareness	- Life safety awareness - Fire safety awareness - Disaster safety awareness	42 Likert 5 point Measure	

#### 2.2.1 독립변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한국어의 표현과 이해능력이다.

한국어의 표현과 이해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형(1=‘매우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 .9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 표현능력은 말하기, 쓰기를 의미하며, 이해능력은 읽기와 듣기를 뜻한다.

### 2.2.2 종속변수: 안전의식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영역은 생활안전의식 17문항, 소방안전의식 10문항, 재난안전의식 15문항 등 3개 영역 42문항으로 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의 Cronbach’s alpha = .83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생활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위협 요소들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명과 재산, 건강에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소방안전의식은 일상생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거나 화재 시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생명을 지키며, 대규모의 재산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재난안전의식은 기후, 기상, 지질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대전·충청 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을 시행하였다. 한국어(500부) 외에 영어(100부), 중국어(100부), 베트남어(100부)로 번역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대전·충청 지역 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 고용사업체, 대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대학교에 배포된 설문지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거된 473부의 설문지 중 유학생 165명의 답변을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연

구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3.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77명(46.7%), 여자가 88명(53.3%)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9세 이하가 113명(68.5%), 30세 이상이 52명(31.5%)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동아시아가 35명(21.1%), 중앙아시아가 20명(12.1%), 동남아시아가 61명(37.0%), 남아시아가 15명(9.1%), 아프리카 10명(6.1%), 아메리카 16명(9.7%), 유럽 및 기타가 8명(4.8%)으로 나타났다. 거주 장소는 기숙사가 40명(24.2%), 원룸이 125명(75.8%)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24명(14.5%),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Descriptor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77	46.7
	Female	88	53.3
Age	≤ 29	113	68.5
	≥ 30	52	31.5
Nationality	East Asia	35	21.1
	Central Asia	20	12.1
	Southeast Asia	61	37.0
	South Asia	15	9.1
	Africa	10	6.1
	America	16	9.7
	Europe/Etc	8	4.8
Status of residence	Dormitory	40	24.2
	Rental	125	75.8
Area of residence	City	24	14.5
	Small town	126	76.4
	Rural area	15	9.1
Duration of staying (year)	< 1	70	42.4
	< 2~3	38	23.0
	< 3~5	31	18.8
	≥ 5	26	15.8
Total		165	100.0

중·소도시가 126명(76.4%), 농·산·어촌이 15명(9.1%)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70명(42.2%), 2~3년 미만이 38명(23.0%), 3~5년 미만이 31명(18.8%), 5년 이상이 26명(15.8%)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수준에서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은 유의미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생활안전과 소방안전, 소방안전과 재난안전, 재난안전과 생활안전도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어 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은 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은 한국어 표현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서 -.0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재난안전의식에서 .126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이해능력 중에서 생활안전의식에서 -.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재난안전의식에서 .057로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 3.3 다중회귀분석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 3.3.1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1.341$  ( $p<.05$ )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1.6%로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4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국어 표현능력( $\beta=.263$   $p<.174$ ), 이해능력( $\beta=-.311$   $p<.108$ )는 생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생활안전의식에 관한 설문 내용이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유사하거나 공통된 내용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3.3.2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5.704$  ( $p<.01$ )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6.6%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7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국어 표현능력( $\beta=.637$   $p<.001$ )는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능력( $\beta=-.572$   $p<.003$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정기간 연수나 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 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어를 실력을 가능해볼 수 있는 일차적인 요소는 표현능력에 포함된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Division	Expression ability	Comprehension ability	Life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Disaster safety awareness
Expression ability	1				
Comprehension ability	.915**	1			
Life safety awareness	-.021	-.070	1		
Fire safety awareness	.113	.010	.648**	1	
Disaster safety awareness	.126	.057	.571**	.736**	1

\*  $p<.05$  \*\*  $p<.01$  \*\*\*  $p<.001$

표 4.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Expression and Comprehension Ability on Safety Awar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Tolerance limit	VIF
Life safety awareness	Constant	4.018	.146		27.535	.000		
	Expression ability	.166	.121	.263	1.365	.174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186	.115	-.311	-1.614	.108	.163	6.118
<i>F=1.341 p=.265 (p&lt;.01), R<sup>2</sup>=.016, adjusted R<sup>2</sup>=.004, Durbin-Watson=1.642</i>								
Fire safety awareness	Constant	3.249	.219		14.864	.000		
	Expression ability	.617	.182	.637	3.390	.001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525	.172	-.572	-3.048	.003	.163	6.118
<i>F=5.704 p=.004 (p&lt;.01), R<sup>2</sup>=.066, adjusted R<sup>2</sup>=.055, Durbin-Watson=1.947</i>								
Disaster safety awareness	Constant	3.363	.194		17.297	.000		
	Expression ability	.385	.162	.453	2.377	.019	.163	6.118
	Comprehension ability	-.288	.153	-.358	-1.877	.062	.163	6.118
<i>F=3.095 p=.048 (p&lt;.05), R<sup>2</sup>=.037, adjusted R<sup>2</sup>=.025, Durbin-Watson=1.830</i>								

말하기 능력이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표현능력인 말하기 영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학생들은 표현능력보다는 이해능력 위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표현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 표현능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높은 이유는 소방 관련 전문 용어들은 높은 수준의 어휘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현능력에 따라서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낮은 이유는 한국어 이해능력이 낮으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 집중해서 응답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으면 설문지 응답에서 집중도가 떨어짐으로써 소극적 응답에 관한 결과로 판단된다.

### 3.3.3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재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재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3.095$  ( $p<.05$ )로 적합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3.7%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한국어 표현능력( $\beta = .453$   $p < .019$ )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능력( $\beta = -.358$   $p < .1$ )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소방안전의식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 3.4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가설 1-1.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국어 표현능력( $\beta = .263$   $p < .174$ )는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능력( $\beta = -.311$   $p < .108$ )는 생활안전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1-2.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소방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국어 표현능력( $\beta = .637$   $p < .001$ )는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가설 1-3.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및 이해능력이 재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에서 한국어 표현능력( $\beta = .453$   $p < .019$ )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 IV. 결 론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표현과 이해능력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능력은 생활안전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표현능력은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현능력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써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여 생활하면서 한국 생활에 맞는 안전의식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 시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한 한국어 이해 교육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정된 지역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 사회 인식 차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방법 및 요구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과 유학생 집단의 안전의식 차이와 안전교육 방법에 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9) 12.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 4.
- [3] Korea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ssociation. (2019). Guidelines for standard work handl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language trainees. <https://www.moe.go.kr/newsearch/searchTst.jsp> (accessed 2019/04/01)
- [4]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s release, (2017). 12
- [5]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Disaster safety awareness policy briefing session.
- [6] J. M. Lee,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the Adaptation in Korea".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pp. 23-30
- [7] Y. Kim, H.-S. Lyu, (2015). "An Empirical Study on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Need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Crisisonomy*. 11(3) pp. 12-15
- [8] S. Ryoo, (2019), "Perceptions on the Safety Level and Safety Education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pp. 67-69
- [9] M.-J. Park, (202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fety Perception of Foreigners: Focusing on Foreigners Living in Daejeon and Chungcheong, which are engaged in Manufacturing Industry".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14(1). pp. 186-203
- [10] D.-G. Park, (2005), "Current status of tsunami damage in South Asia".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5(1), pp. 34-43
- [11] Research World, (2007) Public safety awareness survey results report for revitalization of safety culture. pp. 22-23